

민주, 조국당 견제하나... '범야권 연석회의' 사실상 거절

4·10 총선 결과 거야(巨野)의 한배를 타게 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서로 견제하는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권 견제라는 교집합 속에 묶여 있지만, 일부 현안을 두고 곳곳에서 미묘한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2일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

들어 주도해 달라. 회담 전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으면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라고 했다.

이는 조 대표의 제안에 이를 만에 나온 민주당의 첫 공식 답변으로, 사실상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조 대표의 제안에 '굳이

"대통령과 회담은 민주당과의 회담"... 조국당 '교섭단체' 미온적 민주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공세엔 협력 기류

응해야 하나라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권 대표라 하면 누구까지 만나야 할지가 모호하지 않나"라며 "조 대표가 존재감을 키우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싸늘한 태도는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추진을 두고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20석을 채우려면 8석을 더 확보하거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완화돼야 하는 데 민주당은 계속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 변경을 두고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라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 결과 뒷받침 효능에서 조국혁신당에 1위를 내준 민주당의 견제 심리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작동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공세엔 협력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의혹 특검법' 등 총선 전부터 이미 공감대를 이룬 굵직한 현안이 있는 만큼 양당의 협력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대어 공세 등 선별적 협력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전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자 조국혁신당도 해당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2대 국회 개원 후에는 조국혁신당의 총선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민주당이 협력할지도 주목된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실시를 골자로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론을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며 "자연스럽게 표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들만 거부...언론장악 저지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고인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황윤하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주최 '입들만 거부·언론장악 방지' 22대 국회 1호 입법 대립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약자 복지' 尹, 이재명과 '약자만 선별지원' 논의하나

'전국민 현금 균등지급'에 부정적이지만 대상·금액 등 여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첫 회담에 '선별적 제한'을 전제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의제로 올리는 방안에도 가능성을 열고 실무 협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별 지원" 논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논의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정적 방침을 유지해 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 16일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며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이 야당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면 안 된다는 공식 입장이 잇따라 나왔다.

그러나 정부 출범 2년 만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첫 회담 성사를 위해 양측이 조율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 내에서는 최대한 접점을 찾고 성의를 보이는 기류도 감지된다.

윤 대통령이 재정 건전화를 추구하면

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강조해온 만큼, 지금까지 부정적이었던 현금 지원에 대해서도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하고 금액 등을 조정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려두겠다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으니,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즉답하 기보다는, 일단 경청한 뒤 대통령실 및 정부 검토를 거쳐 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與 원내대표 경선 물밑 시동... '친윤' 이철규 등판 여부 주목

김도읍도 유력 후보 부상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사령탑 레이스를 앞두고 들쭉이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 일정이 다음 달 초로 확정되면서 주자들의 발걸음에도 슬슬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차기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첫 원내사령탑으로서 거야를 상대하며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다.

아직 직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이는 없지만 당내에서는 벌써 서너명

의 이름이 압축적으로 거론된다.

최대 관심은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다. 경찰 출신인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사무총장에서 물러났지만 4·10 총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여당 원내사령탑은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실현하는 자리인 만큼 전임 정부들에서도 전통적으로 대통령실과 가까운 주류 핵심 몫이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일찌감치 유력 후보군에 포함돼 왔다.

이 의원은 당장은 출마 여부에 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레이스 초반부터 전면에 나섰다 당내 친윤·비윤 갈 등 구도를 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일각에서 나오는 점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4선이 되는 김도읍 의원도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된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김 의원 역시 출마 여부를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원내 경험이 탄탄하고 계파색이 없다는 점에서 주로 재선 이상 당선인들 사이 도전을 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주변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로 전해졌다.

민주 원내대표 선거, 단독 입후보시 찬반투표

박찬대 단독 출마해도 '추대' 아닌 과반 지지 얻어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에 후보 1명만 단독 출마하더라도 찬반 투표를 당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의장단 선출 선거 관리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상)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선거는 결선투표가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22대 국회 국회의장 선거에도 결선투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과반의 표를 받는 것이 우리 당 모든 선출 과정의 원칙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도 합당 후 원내대표 선거에 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민주당 당선자 161명에 더해 민주연합과 합당이 원활하게 되면 171명이 투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

했다.

민주당은 25-26일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입후보자들은 30일 열리는 22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토론 등을 통해 조건을 발표한다.

이어 다음 달 2일 민주연합과 합당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사령탑이 결정된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지난 21일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최고위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이후 아직 추가 도전자가 나오지 않았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친명계 후보군에서 교통 정리가 이뤄지는 분위기에 박 최고위원이 결국 단독 추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